

우리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기르기

의사소통능력은 우리 자녀가 말, 행동, 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준다면 자녀는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배움을 얻고, 생활에서도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 자녀, 질문&경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질문하는 방법 지도하기

① 사실적인 질문을 만들어보게 하세요.

독서 및 그림 감상 활동이나 하루일과에 대해 묻는 질문을 만들고 서로 답해보세요.

②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만들어보게 하세요.

'만약 ~라면', '만약 ~했다면', '만약 ~한다면'과 같은 질문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보도록 지도해주세요.

경청하는 방법 지도하기

① 상대방의 말을 귀기울여 잘 듣는 태도

상대가 말할 때 눈을 쳐다보고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라고 추임새를 넣어보도록 해주세요.

② 상대의 마음에 귀기울여 잘 듣는 태도

친구의 말 속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을 할 때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함께 고민하도록 도와주세요.

③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수용하는 태도

상대의 말이 맞으면 자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상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주세요.

의사소통능력은 왜 중요할까요?

의사소통능력이 발달하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 역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협력에 있어서도 소통은 중요한 부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진로정보 TIP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의사소통능력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자의 개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언어, 상징,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바르게 이해·대처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김은주(2020). <초등학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감정표현 프로그램 실행연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공감** 상대방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처럼 느끼면서 같은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
- 경청**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표정과 움직임까지 귀기울여 듣는 것
- 질문**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
- 배려**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에 마음을 쓰는 것
- 설득**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

유튜브(youtube.com) > 진로멘토링
> [중학교_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안] KB온라인진로수업_진로와직업



영남일보
[초등맘상담실] 의사소통 능력 향상 시키기 >



진로 Talk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통과 협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과도 연관이 있는 의사소통능력! 자녀의 성적보다 역량에 집중하여야 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유튜브(youtube.com) > EBS Culture
(EBS 교양) > 미래교육 플러스
- AI는 못해요, 소통과 협업_#001



의사소통능력 향상, 감정표현 학습 해보기

초등학교 학년별에 따른 감정표현 관련 성취 기준

학년	영역	성취 기준
1~2	듣기말하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쓰기	인상 깊었던 일 또는 겪은 일에 대해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3~4	쓰기	읽는 사람을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
	문학	작품을 듣고 읽고 보고 떠오른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5~6	문학	비유적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살리며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참고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한 뒤에 말하거나 쓰기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대인관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표현 학습지로 자녀의 생각을 알아보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진로지도 TIP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듣기·말하기, 쓰기, 문학 영역 순으로 중점적인 감정표현의 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표현 활동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말하기를 중심으로 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듣기나 문학을 활용한 방법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진로돌보기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려면 우선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소통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유튜브(youtube.com) > 안동MBC PLUS
> 아이를 키운다면 꼭 알아야 할 소통 방법



감정표현 설문지

이름: _____

※ 아래의 질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1. 내가 학교에서 많이 경험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아래 보기에서 57지를 골라 O표 하세요.

기쁘다, 신나다, 감사하다, 부듯하다, 가슴벅차다, 편안하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좋아하다, 행복하다, 설레다, 즐겁다, 만족스럽다, 두근거린다, 고맙다, 우울하다, 슬프다, 실망스럽다, 외롭다, 서럽다, 비참하다, 안타깝다, 절망하다, 가슴아프다, 안쓰럽다, 화나다, 짜증나다, 미워하다, 신경질나다, 원망스럽다, 흥분하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충격적이다, 힘들다, 비참하다, 억울하다, 언짢다, 혼란스럽다, 후회스럽다, 불안하다, 무섭다, 놀라다, 긴장되다, 두렵다, 소름끼치다, 조바심나다, 겁나다, 허전하다, 부끄럽다, 샘나다, 약오르다, 부럽다, 신기하다, 나른하다, 귀찮다, 아쉽다, 미안하다, 부담스럽다, 허무하다, 어이없다

2. 1번에서 고른 57지 중 한 가지를 정하여 그 감정은 어떤 일을 겪을 때 느끼는지 써 보세요.

3. 감정표현을 통해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나요?

- ① 거의 대부분 잘 해결된다 ② 대체로 잘 해결된다
③ 대체로 해결되지 않는다 ④ 거의 대부분 잘 해결되지 않는다

4. 감정표현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표현방법을 잘 몰라서
② 감정에 알맞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③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잘 안 들어줘서
④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⑤ 기타(직접 기록하세요): _____

정보 Check!

1. 자녀가 평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표현이 서툰 자녀라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감정 일기 쓰기를 통하여 자녀의 감정표현에 도움을 얻어 보세요. 처음에는 감정에 대한 단순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습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감정에 개방적일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전달법이 익숙한 초등학교 자녀에게 나-전달법으로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해주세요. 친구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친구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나-전달법인 '행감바'를 추천합니다.

참고: 김은주(2020).

<초등학교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감정표현 프로그램 실행연구>



행복한교육 <화날 때 마음을 표현하는 행감바-어기바>